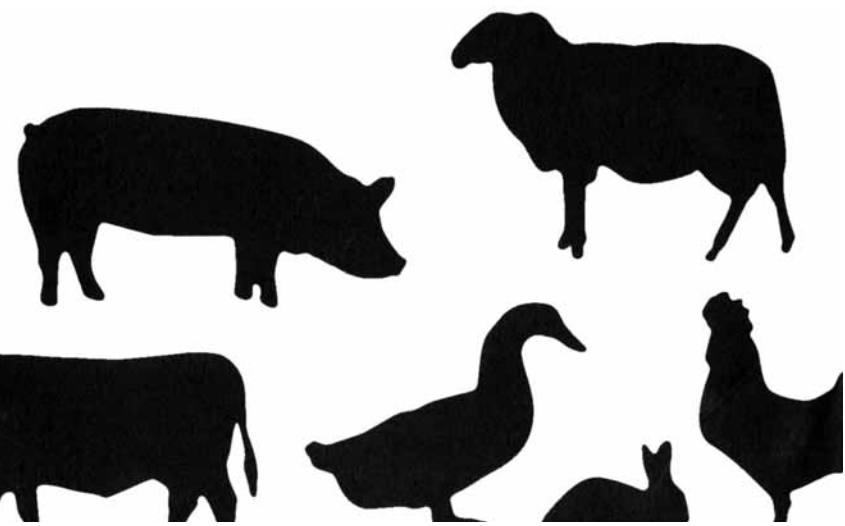


인간은 왜 고기에 중독되는가?



저자는 우리가 고기를 끊지 못하는 것은 중독이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중독은 유전자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산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마르타 자라스카 지음·박아린 옮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거부하는 '영혜'라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다. 상처 입은 인물의 고통을 식물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수작이다. 평소 고기 요리를 즐겨 먹던 영혜는 어느 날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어린 시절 자신의 다리를 문 개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꿈을 꾸고서였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사람들은 영혜를 설득한다. 그럼에도 영혜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버티자 가족들은 영혜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친정아버지는 강제로 고기를 먹인다. 결국 영혜는 과도로 자해를 한다.

소설의 한 예처럼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로 육식을 피한다. 건강이나 환경, 나아가 동물의 인권 또는 개인적 인 특별한 경험 등을 이유로 채식을 선택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고기를 끊기는 쉽지 않다. 어떤 이들은 담배 끊기보다 고기 끊는 것이 더 어렵다고도 한다. 많은 이들이 채식주의를 실천하려다 번번이 실패한 것은 그때문이다.

동물성 섭취를 줄이기 위해 콩이나 글루텐으로 만든 '인조고기'를 씹기도 하지만 고기의 식감에는 미치지 못한다.

고기는 음식을 넘어 공동체문화·권력 상징

육식을 향한 인간의 욕구 파헤쳐

고기 애호가·채식주의자 모두를 위한 책

인간은 왜 고기에 끌리는 것일까? 아니 왜 고기에 중독되는 것일까?

폴란드계 캐나다인인 과학 저널리스트 마르타 자라스카가 펴낸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향한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시도하다 실패를 반복하는 어머니를 보며 고기 집착의 근원은 무엇이며 왜 지속되는지를 추적한다. 또한 고기에 대한 중독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자연사박물관과 고고학연구소, 소를 키우는 농장, 채식주의의 식당 등 세계 각지를 찾아간다.

그 결과 인간의 고기 중독은 유전자와 문화, 역사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생명체의 육식의 역사는 15억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온대성 바다의 고대 박테리아 가운데는 에너지를 합성하는 대신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다른 유기체의 살점을 섭취하는 행위는 세포구조가 복잡한 생물 출현의 계기가 된 것이다. 고기 섭취가 인류 생존의 중요한 근간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당초 인류의 조상은 초식을 했다. 그러나 급격한 기후 변화로 과일이나 채소 얻기가 어려워지면서 동물을 포식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육류 섭취로 인간의 뇌는 커지게 됐고, 생활 근거지 또한 아프리카를 벗어날 수 있었다.

"초기에 인류가 사냥을 시작하자 인간의 신체, 사회,

생활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인류 초기부터 고기는 단지 영양분이 아니라 정치와 성 문화와도 관련이 깊었다."

저자는 고기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 공동체의 문화, 권력의 상징이 됐다고 분석한다. 어느 과학자는 실제 고기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럴 듯한 이야기다. 오늘날에도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인식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정부 보조금으로 육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도 '고기 권하는 사회'를 만든 한 요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육식에 대한 경고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연구에 따르면 절임 육류와 붉은색 육류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20~30% 증가한다고 한다. 언젠가는 육식을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내일 당장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미래에 인류가 주로 식물성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믿지만, 그와 동시에 오로지 채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러했듯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신 육류 소비를 줄이는 행위에 적절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디치·1만7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구드룬 파우제방 지음·오궁훈 옮김 '보헤미아의 우편배달부'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는 즈음, 요한의 고향 마을에는 여자와 아이, 노인들만 남아 있다.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는 모두 징집된 상태. 요한 역시 열일곱 살이 되자마자 징집된다. 그러나 전선 투입 이틀째 되는 날 부상으로 외손을 잃고 3주만에 제대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편배달 일을 시작한다.

독일 아카데미 아동·청소년 문학 풀카흐 대상 수상 작가인 구드룬 파우제방의 '보헤미아의 우편배달부'라는 소설 내용이다. 작품은 종전 70년을 기념해 기획한 소설로 독일 내륙 산간에 사는 열일곱 청년 요한 포르트너에게 다친 10개월간(1944~1945) 일어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공간 배경에서 드러나듯, 소설은 패전 기운이 가득한 2차대전 말기 평범한 독일인들의 일상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전쟁의 참상을 통렬하게 고발한다. 청년 요한의 좌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전개되는 가운데 독자들은 전제의 참상을 실감하게 된다. 우편배달을 시작한 요한에게 가장 힘든 상황은 '검은색 편지'를 배달해야 하는 시간이다. 전사통지서를 배달하는 날은 가족들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에 반해 일반 우편은 주민들에게는 가족(남편, 아들, 아버지)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자 희망이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남겨진 가족의 비통함, 그 고통을 가장 먼저 보고 위로를 해야 하는 우편배달부의 비애는 작품의 핵심주제다. 어릴 때부터 우편배달부가 되길 소망했던 요한에게 '검은색 편지'는 그의 인생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나 다름없다. 일상을 순식간에 절망으로 빠뜨린 전쟁 비극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교유서가·1만3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천홍 지음 '활자와 근대'

근대 연필자 인쇄술은 조선의 근대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신문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인해 조선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신식활자문화의 기원을 이루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당대의 사회와 문화를 고찰한 책이 발간됐다. '출판지반' 편집장 출신으로 아단문고 학예실장인 박천홍 씨가 펴낸 '활자와 근대'는 근대의 활자문화 공간을 조명한다. '1983년, 지식의 질서가 바뀌던 날'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지식과 정보, 개념을 낯선 시선과 감각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당시 조선 정부가 구입한 '푸트 인쇄기'의 수입 경로, '한성순보'의 발행부수와 가격, 박문국 장인들의 종류와 인건비, 활자체 등 저자가 새롭게 밝힌 사실들도 흥미를 끈다. 책은 활자와 인쇄가 현해탄을 건너오기 직전, 중국의 미화서관, 일본의 쓰키치 활판제조소 등 동아시아 근대의 활자문화 공간을 답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히 조선에 관련을 맺고 있던 당시 일본의 인쇄 기술과 활자체 제작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 근대 인쇄출판의 기원을 좀 더 풍부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연필자 인쇄술로 지식과 정보의 생산 양식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는다. 활자 주조와 인쇄 공정이 다품종 소량생산에 토대를 둔 수공업적 '공예'의 영역에서 대량 생산과 유통, 소비를 위한 '공업'으로 이행해갔다. 뿐만 아니라 인쇄도 훨씬 선명해진다. 또한 신문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형식이 처음 선보였고 다양한 정보 등이 번역 소개됨으로써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확대 심화되었다. 〈너머북스·2만8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정서 지음 '85학번 영수를 아시나요?'

최근 영화 '1987'의 흥행 이후, 1987년의 변혁을 이끈 '6월 항쟁' 주역들에 대한 언론의 조명이 한창이다. 그들은 80년대의 중심부에서, 80년대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이들이다. 그러나 종로와 명동에 100만 시민이 운집할 때, 전방을 쓸쓸히 지키며 시대의 급변을 관망해야 했던 젊은이들이 있었다. 자유를 무장해 제당한 채 고작해야 TV를 통해 그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지만, 그들에게 부과된 운명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저자인 번역가 이정서는 알려지지 않은 그 시대의 또 다른 풍경을 자신만의 것으로 남겨둘 수 없어 '85학번 영수를 아시나요?'를 세상에 내놓았다.

1984년에서 1988년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 소설의 화자 '이운'과 그의 동료들은 시대의 변방에 서 있었다. 100만 시민이 종로와 명동을 함성으로 메울 때, 박종철과 이한열이 죽고,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여지고, 88올림픽의 열기가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잠재우고 있을 때, 그들은 '사회'를 떠나 임영을 했고, 전방을 지켰다.

그들에게 1980년대는 무엇이었을까. '87년 체제'와 '6월 항쟁', '88올림픽',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함께 품은 그 시대는 그 시대를 살던 젊은이들에게 어떤 운명을 강요했을까. 저자는 2018년을 사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실업과 불평등과 좌절과 무기력의 벽은 또 하나의 '80년대'인 것이 아닐까라는 내용도 전한다. 이 책은 순수하기에 절망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시대, 모든 젊은이들에게 건네는 통절한 헌사다. 〈새움·1만2000원〉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셋강다슬기 서구 풍곡로 12번길 11(풍암고 정문앞) 다슬기수제비·탕, 다슬기토장탕, 다슬기갈·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손님환영 대표 김병환 ☎062)233-363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할.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컷,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블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블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생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달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 흥 나 루 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내담대구탕·찜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혜숙 ☎062)471-5050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무 크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 산 철 학 원 북구 두암동 에덴신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한솔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